

방글라데시, 임대발전소 축소에 따른 현지 진출 관련 시사점

1. 임대발전소¹⁾ 축소 배경

□ 2010년 임대발전소 확대 추진

- 방글라데시 정부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민자 발전소(Independent Power Plants: IPPs), 임대발전소(Rental Power Plant) 건설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음.
- 석탄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2010년에 디젤 연료를 이용한 임대 화력발전소 확대를 계획했으며, 동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18개의 임대발전소가 구축되었음.
- 방글라데시 당국은 2010년에 6개 민간 발전사업자와 임대발전소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방글라데시 전력청(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BPDB)은 전력 공급업체들에 킬로와트당 4.7 ~7.78타카(약 0.07~0.12달러)의 단가를 적용해 왔음.

□ 임대발전소 구축 및 운영으로 연료 등 상품수입 증가

- 임대발전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연료 수입 확대로 2010년 이후 상품 수입이 증가하였고, 이는 방글라데시 타카화의 미 달러 대비 가치 하락과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짐.

1) 임대발전소(Rental Power Plant)는 디젤, 중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중소형 화력발전소로, 지역 민간 업체가 임대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며 생산된 전력에 대해 정부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며, 단기간 내 발전 및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표> 방글라데시 주요 대외거래 지표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상품 수입(억달러)	215	197	247	317	359
상품수지(억달러)	-60	-46	-55	-79	-90
연중 평균환율(타카/달러)	68.6	69.0	69.6	74.1	84.1
외환보유액(억달러)	58	103	112	92	102

주: 2011년 수치는 추정치이며, 2012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IMF 및 EIU.

- 2011년 상반기에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대발전소 운영에 사용되는 연료 수요가 급증하는 등 정유제품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하여 전체 수입을 주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방글라데시의 상품 수입 규모는 주요 수출품인 의류 생산에 사용되는 방적사 및 석유 등 주요 필수품 수입 지속으로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년도 247억 달러에서 약 28% 증가한 31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수입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또한 확대되어 2010년 약 55억 달러에서 2011년 79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상품수지 적자 지속으로 2011년 미 달러 대비 연중 평균환율 또한 2010년 69.6 타카보다 상승한 74.1타카를 기록하였으며, 외환보유액의 경우 2010년 약 112억 달러에서 2011년 92억 달러²⁾로 약 1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임대발전소 운영비용 증당으로 재정적자 확대

- 방글라데시 전력청이 민간 부문에 전력을 판매할 때 임대발전소 운영업체에 지불하는 단가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킬로와트 당 2.37타카)을 적용함에 따라 2011/12 회계연도에 1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현실적인 수입-비용 구조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됨.

2) 이는 월 평균 총수입액의 3배 정도에 해당하며, 외환위기 발생 시 필요한 최소한의 외환보유액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국제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임대발전소 운영을 위한 석유 수입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석유의 수입, 저장 및 공급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인 방글라데시 석유공사 (Bangladesh Petroleum Corporation: BPC) 또한 영업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³⁾
- 방글라데시는 낮은 세금 징수율 등으로 세수가 부족하나 연료 보조금 지급과 복지지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등으로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적자 규모⁴⁾가 확대되고 있음.

□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발전소 건설 확대 추진

- 임대발전소를 통한 전력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방글라데시 당국은 장기적 대안인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해당 자원 마련에 힘쓰고 있음.
 - 정부는 2012년 2월 바게르하트(Bagerhat) 지역에 1,320 메가와트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하였으며, 수도 다카 등 4개 지역에 추가적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나 석탄의 국내 생산이 제한되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 천연가스는 이미 전력 생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료이나 국내 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꾸준히 석탄을 대체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원자력 또한 검토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 국영 에너지기업인 페트로방글라(Petrobangla)는 러시아의 가즈프롬 (Gazprom)과 내륙지역 가스채굴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전력 생산 확대에 힘쓰고 있음.
 -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Rosatom)와 1,000 메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2개 건설에 합의하였으며, 2013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2018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

3) 임대발전소 구축으로 방글라데시 석유공사의 석유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2010년 380만 톤에서 2012년 6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4) 2011/12 회계연도 기준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약 54억 달러로 증가하여 GDP 대비 약 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현지 진출 관련 시사점

□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력공급 부족이 심각한 경제성장 저해요소임을 인식하여 전력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 부문 관련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현지 진출 기업들은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가 단기적인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발전소 확대를 추진할 당시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기 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결국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확대로 정책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수출기업이 진출 전략을 구상할 때 현지 상황 및 정책 결정과정을 조기에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고려도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줌.

□ 우리나라 기업의 천연가스 플랜트 및 전력부문 진출 확대 계기

- 전력 생산시 천연가스, 원자력 등 기존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어 천연가스 생산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수입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한편, 방글라데시 당국이 전력 공급부문 뿐만 아니라 송·배전 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성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으므로 동 부문에 대한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 순 재】